

# 배터리업계, 자원 공급망 넓힌다 국내 수급 활성화 방안 적극 검토

리튬 등 저평가 자산 투자 확대  
공급망 다변화 통해 돌파구 모색  
“제조비용 줄이고 외부환경 대응”

배터리 업계가 업황 부진 속에서 생산능력 확대보다 생존을 위한 제조비용 절감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배터리 핵심 소재 공급망을 강화함으로써 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배터리사들이 캐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원 공급망을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리튬, 니켈 등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기) 시기에 저평가된 자산에 투자를 확대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구매 원가를 낮추기 위해 국내 수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모양새다.

지난 27일 기준 탄산리튬 가격은 1kg당 75위안(약 1만4449원)으로 올해 최저점을 찍었던 지난 10월말(1kg당

69.5위안)보다 약 8% 상승했다. 가격 반등 요인으로는 지난 9월 중국 CATL이 연산 20만톤의 리튬 공장을 문을 닫은 것이 꼽힌다. 호주 리튬 업체들도 감소, 생산 지연 등 공급 조절에 나서는 등 가격방어에 돌입한 점 또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리튬이 가격 상승세를 보이며 수급처 확보는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리튬은 호주·칠레·중국 등 3개국이 전체 생산의 약 90%를 점하고 있어 국내 업계에게 리튬 공급망 안정화는 곧 비용 절감의 핵심 방안으로 여겨진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핵심 광물자원 중 리튬 공급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7월 호주 리튬 광산 업체 라이온타운과 리튬 정광 최종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리튬 정광 70만톤을 공급받게 됐다. 특히 고용량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수

산화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리튬 정광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시장 경쟁력을 높일 기회를 잡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SK온은 국내에서 생산된 수산화리튬을 확보하며 배터리 핵심 원소재 수급 다변화에 나선다. SK온은 포스코필바리튬솔루션과 수산화리튬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해 2027년까지 1만 5000톤을 공급받는다.

삼성SDI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와 2056억원의 전구체 공급계약을 체결해 배터리 소재 내재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SDI는 전구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자회사인 에스티엠(STM)을 통해 직접 양극재로 가공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품질관리와 원가 절감 측면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누구나 BMW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고객친화적 복합 문화 공간 탈바꿈

Q 르포

## BMW 드라이빙 센터

‘리테일 넥스트’ 콘셉트 반영  
내부 벽 최소화… 휴식공간 확대

“BMW 드라이빙센터는 방문해 여유롭고 편안하게 자동차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 했습니다.”

BMW코리아가 인천 영종도에 자리하고 있는 BMW 드라이빙 센터를 고객 친화적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이전 전시장과 차별화된 부분은 고객들이 이동 중 쉴 수 있는 좌석 공간을 곳곳에 배치했으며 내부 벽을 최소화해 이동성과 개방감을 확대했다.

28일 방문한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는 BMW 그룹 내 독일과 미국에 이어 아시아 지역 최초의 드라이빙 센터이자 전 세계 유일의 트랙 및 고객 체험 시설이 한곳에 자리한 자동차 복합문화공간이다. 770억원을 투자해 2014년 7월 문을 열었으며, 2019년에 추가 확장에 130억원, 이번 리뉴얼에 48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950억원이 투입됐다. 전체 규모는 축구장 40개 면적에 버금가는 총 29만1802㎡에 이른다.

BMW 드라이빙 센터는 자동차 전시 공간 외에도 드라이빙 트랙과 어린이 과학 창의교육 공간인 주니어 캠퍼스, 친환경 체육공원 등을 두루 갖췄다.

이번에 리뉴얼된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센터는 BMW 그룹의 차세대 전시 공간 콘셉트인 ‘리테일 넥스트’가 반영돼 고객 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또 하나의 동선으로 모든 전시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공간을 구분하던 벽체를 허물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실리스’ 개념이 적용돼 관람객은 하나의 간결한 동선으로 BMW와 MINI, BMW 모터라드의 최신 차량과 브랜드 역사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차량을 도열하는 기존의 정형화된 전시 방식에서 벗어나, 관람 동선을 따라 모델을 배치하고 휴게 및 상담 공간을 마련하여 고객이 자연스럽게 센터 내 모든 브랜드 및 서비스 체험 시설을 경험하도록 구성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정면에 웰컴 디스플레이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오른쪽에는 MINI(미니)존이 자리하고 있다. 미니의 양증맞으면서도 톡톡 튀는 개성을 담은 디자인과 조명, 그리고 미니의 아이덴티티인 동그란 헤드라이트



BMW 드라이빙 센터 BMW M존.



BMW 드라이빙 센터 MINI 전시 존.

의 형상을 담은 미러로 전시공간을 조성했다. 전시실 한편에는 미니의 히스토리를 담은 사진들을 전시했다.

건물 한편에는 BMW의 1~6시리즈 모델이 전시돼 있다.

입구 왼쪽으로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곳에는 BMW의 1~6시리즈 모델들이 전시돼 있다. 차량을 도열하는 기존의 정형화된 전시 방식에서 벗어나 천장에 표시된 관람객의 워크웨이를 따라 자유롭게 차량을 배치했다.

7시리즈 이상은 BMW 럭셔리 클래스 라운지에 전시돼 있다. 한국 전통의 색상과 문양, 장식 등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꾸며 색다른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그 옆에는 BMW 고성능 브랜드 M존이 있어 BMW의 고성능 차량도 감상할 수 있다. BMW는 이곳을 드라이빙 체험 라운지를 가는 동선 직전에 위치시켜 드라이빙 체험을 하러 온 고객들이 M존에서 감정적인 즐거움을 느끼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고객들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꾸민 ‘모토라드 존’, 품목을 이전 대비 15% 늘려 즐거운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한 ‘라이프스타일 존’, 브랜드 철학을 깊게 만날 수 있는 ‘헤리티지 존’, 미래 비전과 기술 콘셉트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비전 포럼’ 등이 자리 잡았다.

BMW 그룹은 “지난 10년간 모든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형태의 즐거움을 전달하며 유쾌한 자동차 문화를 전파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편하게 쉬면서 차량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Powering the Future with Premium Lithium

## 포스코필바리튬솔루션 종합준공

포스코그룹이 지난달 29일 전남 울촌산업단지에서 포스코필바리튬솔루션의 수산화리튬 제2공장을 준공했다.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왼쪽부터), 스티브 스쿠다모어 필바리튬솔루션 사외이사, 제프 로빈슨 주한호주대사,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도지사, 권향업 국회의원,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포스코그룹, 리튬 국산화 박차… 年 4.3만t 생산

광양 울촌산업지 제2공장 준공  
장인화 회장 “글로벌 톱 리튬사 성장”

포스코그룹이 이차전지용 수산화리튬 연산 4만3000톤 생산체제를 완성했다. 연간 전기차 약 100만대 분량에 들어갈 핵심광물 수산화리튬의 국산화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1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포스코필바리튬솔루션은 지난달 29일 전남 광양시 울촌산업단지에 광석 기반 수

산화리튬을 생산하는 제2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포스코필바리튬솔루션은 지난해 11월 연산 2만1500톤 규모의 제1공장을 준공한 뒤, 1년 만에 제2공장을 완성하며 총 연산 4만3000톤 규모의 리튬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포스코필바리튬솔루션 제1공장은 독자 개발한 전기투석 원리의 리튬 추출기술을, 제2공장에는 호주·중국 등 해외기업이 운영 중인 상용 기술을 각각 적용했다.

회사 측은 이곳에서 생산한 수산화리

튬을 포스코퓨처엠에 연간 최대 3만톤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또 지난달 22일 SK온과 향후 3년간 최대 1만5000톤을 공급하는 장기계약도 체결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포스코그룹은 글로벌 규제환경 변동 속 이차전지소재 핵심광물인 리튬을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철강에 이어 이차전지소재 분야에서도 소재보국의 길을 열었다”며 “추후 글로벌 톱 리튬사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LG전자-아파트멘터리, 공간솔루션 사업화 맞손

AI홈 기반 가전-인테리어 결합

LG전자가 인테리어 전문 스타트업 ‘아파트멘터리’와 손잡고 ‘AI홈’의 확대와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선다.

LG전자는 지난달 29일 아파트멘터리와 ‘공간솔루션 제품 및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류재철 LG전자 HS사업본부장 사장, 이향은 HSCX담당 상무와 윤소연·김준영 아파트멘터리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LG전자의 AI홈 솔루션을 기반으로 가전과 인테리어를 결합해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공간

솔루션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협력한다.

이와 함께 양사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가전을 선택하는 시점을 설계 초기 단계로 앞당겨, AI가전과 인테리어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혁신 솔루션을 제안할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삼성전자, ‘AI 구독클럽’ 서비스 개시

TV, 냉장고 등 가격 부담없이 사용

삼성전자는 ‘AI구독클럽’ 서비스를 전국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을 통해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AI 구독클럽은 소비자가 월 구독료를 내고 일정 기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제품구매시 초기 비용을 낮춰 더 많은 소비자들이 삼성전자의 최신 제품을 부담 없는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구독서비스대상 모델은 ▲TV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이며 이 가운데 90% 이상은 AI(인공지능) 제품으로 구성했다.

고객들이 꼭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만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요금제를 세분화 하였으며 무상 수리, 케어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구남영 기자